

정부, '빌라왕' 피해자들 구제 논의 본격화... 첫 합동 회의

법무부·국토부, '빌라왕' 피해 지원 합동 TF 꾸려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꾸려졌다. 법무부, 국

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TF는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 모씨가 사망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는 데 방점을 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보증금 대위변제가 되지만, 이번 경우엔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TF는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률상담터, 마을번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추진상

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하겠다"고 했다.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인 인물이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그가 지난 10월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서선욱기자



다가온 크리스마스 20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설치된 크리스마스 조형물과 사진을 찍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재활치료 200시간과 약 3985만원 추정 명령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원의 추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습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고, 범행을 수사과정에서 인정했으며 상선 수사도 적극 제보했다"며 "큰 잘못이지만 구금으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은 생계조차 막막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했고, 그 재능을 다시 한 번 사회봉사에 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덧붙여 "수염을 정리하지 않고 법정에서 나온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도 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월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지난 10월21일 구속 기소했다.

최이슬기자

빙판길 미끄러진 승용차, 요금소 충돌·전복...운전자 경상

40대 여성 몰던 승용차미끄러지면서 충격 방지 구조물 충돌

20일 오전 7시 54분께 광주 서구 유덕동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공항 방면) 주변 편도 3차선 중 1차로 하이패스 구간 진입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충격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이 뒤집혔으며 운전자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현장 수습 과정에서 해당 차로 진입이 50분 가량 통제돼 지·정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내린 폭설로 도로 노면이 미끄러워 난 사고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